



HEADLINE NEWS

순환도로망 구축을 통한 도시기능
분산 추진 (동경)

東京都는 지난 9월 8일, 15년 후의 東京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東京구상 2000」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東京都는 이날 발표를 통해, 향후 15년 내에 東京都에 집중된 도시기능을 치바縣, 사이타마縣, 가나가와縣 등지로 적절히 분산시키고, 이들 지역을 순환도로망으로 연결함으로써 '環狀 메갈로폴리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東京都는 또한 이를 위해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東京구상 2000」의 기본취지는 3개 순환고속도로를 정비한 후 이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기능의 도심부 집중을 시정하는 데 있으며, 50년 후를 내다보고 수립하는 도시정비 구상을 2015년까지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東京都는 이 구상을 현실화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연내에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日本經濟新聞, 9. 9)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땅값 10년 연속 하락해 '84년 수준으로 '복귀 (동경)

도시환경

- ② 환경보호 공로자에게 「베를린 환경賞」 수여 (베를린)
- ③ 쓰레기 '몰래버리기' 막기 위해 트럭 내 쓰레기통 설치 (동경)
- ④ '시민조사팀', 자치구·도로별 청결도 조사 (워싱턴)
- ⑤ '소음공해' 상습유발자 처벌 대폭강화 (뉴욕)

도시교통

- ⑥ 천연가스차·출퇴근시차제 도입 등 환경친화형 교통정책 실시 (오스틴)
- ⑦ 승용차도 요금 내면 통행가능한 유료 '다인승차로제' 시행 (샌디에고)
- ⑧ '다목적용 스마트카드' 도입 (핀란드: Rovaniemi & Seinajoki市)
- ⑨ 재래상가 활성화 위해 무료순환 '마을버스' 운행 (코베)
- ⑩ 운행속도·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버스의 도시전철화' 추진 (L.A.)

사회복지

- ⑪ "장애인에게 컴퓨터를!" (뉴욕)
- ⑫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 필요 (뉴욕)

행재정

- ⑬ 市자산상태를 기업회계식 대차대조표로 작성 (히로시마)
- ⑭ 「공원축제」 개최 (파리)
- ⑮ 올림픽 유치를 위한 「올림픽광장」 행사 개최 (파리)

1 땅값 10년 연속 하락해 '84년 수준으로 '복귀' (동경)

東京都内 모든 용도의 평균지가가 10년째 하락해 지난 '84년 수준인 것으로 최근 조사 결과 밝혀졌다. 東京都가 지난 9월 19일 발표한 '7월 1일 현재 기준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지 1,409개 지점의 평균지가가 1평방미터당 65만 5,700엔으로, 전년 대비 6.3%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지 및 상업지의 하락폭은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부야區 등 남서부 자치구의 주택지는, 지가가 거의 변동하지 않은 곳이 많았으나, 북동부 자치구와 타마 지구 등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지가변동의 양극화를 보여주었다.

(itp.ne.jp/topics/mainichi/13_07.html)

2 환경보호 공로자에게 「베를린 환경賞」 수여 (베를린)

베를린市는 「베를린 환경賞 2001」 수상후보자를 10월중 공모해 내년 6월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 '89년 제정되어 2년마다 수여되는 「베를린 환경賞」은 환경 친화적인 생산방식 운용 및 상품 생산, 자연보호·환경개선·자원재활용 사업 및 투자 등 환경보호를 위해 괄목할 만한 노력을 기울인 개인,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 선정은 재계·노동계·환경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수상자에게는 5만 마르크의 상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환경보호사업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www.sensut.berlin.de/sensut/umwelt/preis/einleitung.shtml)

3 쓰레기 ‘몰래버리기’ 막기 위해 트럭 내 쓰레기통 설치 (동경)

東京都 트럭협회는 최근, 운전자들이 거리나 도로에 투기하는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트럭의 조수석 밑에 ‘클린 박스’라고 이름 붙인 쓰레기통을 설치키로 했다. 「몰래버리기 금지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에 따라 약 8,000대의 트럭에 쓰레기통이 설치될 예정이다. 그 동안 都內 트럭운전자들은 ‘東京都 거리에 몰래 버려진 쓰레기의 70~80%가 영업용 트럭에 의한 것’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클린 박스’는 가로 25cm, 세로 16cm, 높이 26cm 크기이며, 측면에는 「몰래버리기 금지작전」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다. 앞으로 운전자가 ‘클린 박스’에 쓰레기를 담아 오면 회사측이 쓰레기 처리를 맡게 된다. 東京都 트럭협회는 이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트럭 뒷부분에 ‘몰래버리기 금지작전 실시차’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다.

(itp.ne.jp/topics/mainichi/13_04.html)

4 ‘시민조사팀’, 자치구·도로별 청결도 조사 (워싱턴)

현재 워싱턴市는 방치된 공터, 쓰레기 무단투기, 낙서, 불법광고물 부착, 차량유기 등 도시의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10대 요소를 선정, 이를 줄이기 위한 ‘도시청결운동’을 벌이고 있다. 市는 우선 공공시설물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각종 광고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市와 경찰, 환경단체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 조직은 기존 규제의 효과적 시행방안을 모색하고, 장단기적 정책 제안과 청결한 도시환경을 위한 규제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지난 '99년 9월에 조직된 시민 중심의 조사팀은 연 4회 각 자치구 및 주요도로의 청결도를 조사, 순위를 매긴 후 GIS 지도로 제작, 공개하고 있다. (cleancity.washingtondc.gov)

5 ‘소음공해’ 상습유발자 처벌 대폭강화 (뉴욕)

뉴욕市는 최근 환풍시설, 음반가게, 자동차, 건설현장 등의 소음을 규제하는 「소음통제조항(Noise Control Code)」의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누증벌금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의 소음통제조항에는 위반자에 대한 최소 및 최대벌금만 명시되어 있어, 이를 단지 ‘영업비용’ 정도로 생각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이러한 상습적인 위반을 막기 위해 2년 동안 2번 이상 위반한 상습위반자에 대해 누증적인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www.ci.nyc.ny.us/html/om/html/97/sp654-97.html)

6 천연가스차출퇴근시차제 도입 등 ‘환경친화형’ 교통정책 실시 (오스틴)

미국 오스틴시는 최근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미 환경보호청의 「대기질관리기준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에 의거, 새로운 교통정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혼잡통행료 부과, 주차요금 인상, 다인승전용차로 지정, 재택근무제 및 출퇴근시차제 확대 실시, 자전거 등 자동차대체교통수단 육성지원, 오존경보시 자동차 운행규제, 천연가스 등 무공해교통수단 도입 및 공해배출차량 단속 강화 등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ww.epa.gov/www.ci.austin.tx.us/airquality) (월간교통, 8월호, 교통개발연구원)

7 승용차도 요금 내면 통행가능한 ‘유료’ 다인승차로제 시행 (샌디에고)

샌디에고시는 '96년부터 15번 고속도로에서 시행해온 13km 연장의 다인승전용차로제(HOV Lane)를 수정해 '98년부터 ‘유료’ 다인승차로제(HOT Lane)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와 카풀차량은 기존처럼 무료통행이 가능한 ‘유료’ 다인승차로제의 가장 큰 특징은 1인승 승용차도 요금을 내면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요금은, 일정한 주행속도 유지를 위해 혼잡정도에 따라 최저 50센트에서 최고 8달러까지 차등 부과되며, 진입로에 설치된 가변전광판을 통해 현재의 요금수준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견힌 요금의 일부는 새로운 직행버스서비스 도입에 쓰인다. 최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료’ 다인승차로제의 도입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www.sandbag.cog.ca.us/i-15fastrak)

8 ‘다목적용’ 스마트카드 도입 (핀란드 : Rovaniemi & Seinajoki市)

핀란드의 Rovaniemi市와 Seinajoki市에서는 스마트카드를 시영카드(City Card)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요금 지불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요금 지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市 관계자에 따르면, 스마트카드 도입으로 학생용 티켓, 교통량이 적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티켓 등 다양한 형태의 티켓개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www.ertico.com/what_its/succstor/smartcrd.htm)

9] 재래상가 활성화 위해 무료순환 ‘마을버스’ 운행 (코베)

코베(神戸市) 新長田驛 지구는 대형 슈퍼마켓으로 향하는 손님을 지역의 재래상가로 되돌리기 위해 주택가와 재래상가, 병원을 무료 순환하는 버스를 10월 1일부터 2달간 시범운행할 예정이다. 「고령자에게 상냥한 상가 만들기 사업 추진위원회」가 운영할 이 버스의 주요고객은 노인으로, 이들을 위해 복지사인 승무원도 탑승하고 승하차 시간도 충분히 제공된다. 28인승 버스에는 물수건과 함께 생선 및 식품 보관용 쿨러박스도 비치해놓았으며, 우산도 대여해준다.

(www.tokyo-np.co.jp/news/2000091614.shtml) (東京新聞, 9. 16)

10] 운행속도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버스의 도시전철화’ 추진 (L.A.)

로스앤젤레스市 교통부는 질 높은 도시전철 서비스와 탄력적인 버스 서비스를 통합한 「Bus Rapid Transit(BRT)」 시스템을 지난 6월부터 Wilshire 및 Ventura 가로에서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통행속도개선, 이용자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버스서비스를 도시전철(Metro Rail)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 버스시스템에 버스전용차로제 및 버스우선신호제 시행, 승하차 운영서비스·요금징수체계·정류장시설 개선, 정보제공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 총 통행시간 중 신호교차로에서의 대기시간이 20%, 승하차시간이 23%, 혼잡으로 인한 지체시간이 5%, 주행시간이 52%를 차지함에 따라 통행속도 개선을 위해서는 신호교차로 대기시간 및 승하차시간 감소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BRT 시스템이 도입된 정류장 간격이 0.8~1.0마일이기 때문에 향후 도시전철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정류장 간격이 1.1~1.6마일인 도시전철보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市 교통부는 내다보고 있다.

(brt.volpe.dot.gov)

📖 “장애인에게 컴퓨터를!” (뉴욕)

최근 미국내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이 지체부자유자의 삶의 질을 일반인보다 두 배 이상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욕시 맨해튼의 경우 혼잡한 도로사정, 택시와 지하철에 대한 장애인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을 통한 배달서비스가 지체부자유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일반인의 57%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반해 지체부자유자는 43%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배달서비스전문업체인 코즈모닷컴(Kozmo.com)은 쏘미 크리스티나 재단(National Cristina Foundation)과 공동으로 뉴욕시 지체부자유자에게 컴퓨터를 기증하고 컴퓨터교육을 실시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현재 미국에는 전 인구의 20% 정도인 5,400만명의 지체부자유자가 있으며, 뉴욕시와 그 근교에는 560만명이 살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9. 5)

📖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친저생계비’ 현실화 필요 (뉴욕)

뉴욕시 교육·경력개발 여성센터의 최근 조사 결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 지급기준이 되는 연방정부의 「빈곤선(Poverty Line)」 기준이 뉴욕시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시의 경우 연방정부에서 설정한 3인 가족 빈곤선이 연소득 14,150달러인데 반해, 실제 자립생활을 위한 최소비용은 자치구(Boroughs)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빈곤선 기준의 2~5배 정도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3인 가족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브룩클린 자치구에서는 연 35,940달러, 퀸즈 자치구에서는 연 46,836달러, 맨해튼 남부지역에서는 연 74,232달러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수준과 실제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는 최소소득수준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The New York Times, 9. 13)

⑧ 市 자산상태를 기업회계식 대차대조표로 작성 (히로시마)

히로시마市는 처음으로 자산상태를 기업회계식 대차대조표로 작성하여 지난 9월 18일 공표했다. 자치성의 기준을 근거로 작년 3월말 현재 자산과 부채를 산출해본 결과, 자산은 2조 727억엔, 부채는 8,573억엔, 순자산은 1조 2,154억엔으로 나타났다. 市는 市 자산상태를 명확히 밝힌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향후 재정운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산출 결과에 따르면, 학교와 도로 등 유형고정자산이 1조 8,739억엔으로 전체 자산의 90.4%를 차지했으며, 부채는 지방채가 7,448억엔, 퇴직급여준비금이 599억엔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자산 187만 9,000엔, 부채 77만 7,000엔, 순자산 110만 2,000엔으로, '89년도 말과 비교하면 1인당 자산 및 부채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itp.ne.jp/topics/mainichi/34_01.html)

⑧ 「공원축제」 개최 (파리)

파리市는 9월 23일과 24일 이틀간 「공원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에서는 '조경'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정보교환 및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꽃 조형예술, 정원 조성, 약초 전시, 꽃 장식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제공되었다. 아울러 그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시청·수도원·유네스코·국립문헌보관소 내의 정원이 개방되었으며, 장애인을 위해 공원순회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www.paris-france.org/Parisweb/noflash.htm)

⑧ 올림픽 유치를 위한 「올림픽광장」 행사 개최 (파리)

파리市는 시드니 올림픽기간에 맞춰 시청 광장에서 「올림픽광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08년 파리 올림픽 유치를 위해 파리市가 각종 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고, 올림픽을 개최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할 목적으로 열렸다. 행사기간 동안 올림픽광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주요 올림픽 경기를 중계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림픽 경기종목에 대한 소개와 기본적인 강습을 실시했다.

(www.paris-france.org/Parisweb/noflash.htm)